

# 《蘇詩摘律》에 대한 판본 고찰\*

洪瑞妍\*\*

## <目次>

1. 서론
2. 편찬경위
3. 판본개황
4. 편찬체제상의 특징
5. 결론

## 1. 서론

蘇軾의 시집으로 남송시대에 광범위하게 성행한 것은 王十朋(1112-1171)이라는 書名이 적혀있는 分類注本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이다. 이후 劉辰翁이 評點을 가한 《增刊校正王狀元集注分類東坡先生詩》 등의 分類注本이 金代와 元代까지도 유행하는 등<sup>1)</sup> 蘇詩 판본으로 명대까지 주를 이룬 것은 分類注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대에는 分類注本에 대한 대대적 개편과 함께 分類注本을 수정한 明 萬曆시기의 茅維 刊本 《東坡先生詩集注》 32권이 편찬되기도 한다. 이는 뒤에 청대 朱從延의 重刻을 거쳐 《東坡詩集注》 32卷으로 완성되어 《四庫全書》에 수록됨으로써 소식시의 광범위한 보급에 기여

\* 이 논문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1)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韓國中語中文學會, 《中語中文學》 제45집, 2009), 77-83쪽 참조.

하게 된다. 명대에는 또 分集編訂本 明版 ‘七集’이 새롭게 출간되는가 하면 分類合編本인 蘇軾 詩文集도 출간된다. 특히 明版 七集本을 기초로 詩(권1-32)와 文(卷33-115)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東坡全集》 115卷本은 청대에 들어와 蔡士英의 校訂을 거치며 《四庫全書》에 저록됨으로써 《東坡詩集注》 32卷과 함께 널리 보급되게 된다. 이처럼 명대 蘇詩 판본의 중심에는 明版 七集本과 그 영향 하에서 새롭게 편찬된 分類合編本 《東坡全集》 115卷, 그리고 分類注本 《東坡先生詩集注》 32卷 등 세 판본 계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蘇詩 판본에 있어 남송 판본과 청대 판본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sup>2)</sup>

조선시대에 소식의 시집은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등 다양한 판본 형태로 간행되었다.<sup>3)</sup>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진 것은 소식의 시를 25권 78類로 분류한 《增刊校正王狀元集注分類東坡先生詩》으로 판본 종류만도 68종에 이른다. 그 외 《東坡詩選》(2종), 《蘇詩摘律》(3종)<sup>4)</sup> 등이 전하는데<sup>5)</sup>, 이 가운데 《蘇詩摘律》은 상기한 《增刊校正王狀元集注分類東坡先生詩》에 비해 그 영향력과 중요도에서는 미약하지만 명대에 간행된 여러 蘇詩選本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sup>6)</sup> 조선 전기에 중앙과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주목된다. 특히 《蘇詩摘律》은 300 수에 달하는 소식의 칠언 율시만을 선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諸家の 평어를 集注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찬체제상의 특징은 《蘇詩摘律》이 지닌 문헌적 가치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고찰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는 현존하는 조선본 《蘇詩摘律》에 대한 실사에 근거해 각 판본의 서지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 편찬체제상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김보경, <명대(明代) 소식(蘇詩) 판본(版本)에 대해서>, (중국어문연구회, 《中國語文論叢》 제46집, 2010), 358쪽 참조.

3)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4쪽 참조.

4) 당윤희는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에서 조선본 《蘇詩摘律》 판본을 1종이라고 보고했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총 3종이다.

5)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84쪽 참조.

6) 김보경, <명대(明代) 소식(蘇詩) 판본(版本)에 대해서>, 353-358쪽 참조.

## 2. 편찬경위

《蘇詩摘律》의 구체적인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편찬자인 劉弘 자신이 쓴 서문을 통해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sup>7)</sup> 먼저 편찬자 劉弘에 대해서는 그가 명 초기의 인물이었다는 점 외에 자세한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다만 중국본 《蘇詩摘律》에 수록된 그 자신의 서문을 통해, 그가 '無錫 출신이며 號는 '鶴叟'이고 字는 '超遠'이라는 점, 일찍이 大名府 開州에 직속된 長垣縣의 知縣을 역임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sup>8)</sup>

劉弘이 《蘇詩摘律》을 편찬한 명확한 시기 또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長垣縣의 知縣으로 지내던 景泰 五年, 즉 1454년경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sup>9)</sup> 《蘇詩摘律》의 편찬시기가 불분명한 것과 달리 그 간행시기는 劉弘 자신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명 英宗 시기인 1461년(天順 五年)임을 알 수 있다.

劉弘은 서문에서 《蘇詩摘律》이 남송 王十朋(1112-1171)의 《王狀元集 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의 기초 위에서 완성되었음을 밝히면서 그 편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sup>10)</sup>

7) 조선본 《蘇詩摘律》 판본에는 모두 서문이 없다. 따라서 본고는 상해도서관 소장본에 있는 서문을 참고했다.

8) 《蘇詩摘律》 序: 直隸大名府開州, 長垣縣知縣 前鄉貢進士, 常之無錫鶴叟劉弘超遠序.

\* 참고로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蘇詩摘律》條의 주석에는 劉弘이 明 正統 九年(1444년)에 舉人이 되어 景泰 五年(1454년)에 長垣縣의 知縣으로 임명되었으나 뒤에 東平縣 知州로 좌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卷174, 《蘇詩摘律》條 주석: 明正統九年舉人, 景泰五年任長垣知縣, 後遷順天官, 東平知州.

9)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卷174, 《蘇詩摘律》條 주석: 該書系劉弘於景泰五年著.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10)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734쪽: 嘗って宋王十朋字龜齡が東坡詩を咏題で分類した《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がわった。劉弘はそれを得、公退の暇に律詩のみを摘取し、諸儒の註を下に附し、問問己の見解をも補って本書を成したと言う。

東坡 蘇先生의 일부 시를 龜齡王先生이 모아, 노래된 標題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했으니, 五·七言 絶句와 律詩, 古選과 長短歌詞가 함께 수렴되어 나란히 실렸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後學者들은 소식의 장편시는 낭송을 못하고 걸핏하면 졸음을 느껴 그 절구와 율시를 높은 책장에 묶어 놓으니, 선생의 시는 그 아름다움을 잃고 세상에서 빛을 떨치지 못했다. 나는 어느 날 예전에 하던 시 공부를 다시 하다가 龜齡先生이 편찬한 소식의 시집을 얻어 읽는 도중에 소식의 율시를 발견하고는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 공직을 물러나 한가해지자 일부 작품들을 뽑아 종류별로 여러 학자들의 평어를 그 아래 초록한 뒤 사이사이에 나의 견해 한 두 가지를 끼워 넣고 모두 圈點을 이용해 직접 분류해 시집의 이름을 《蘇詩摘律》이라고 명명했다. 장차 후학들에게 남겨 스스로 살펴보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11)</sup>

위에서 말하는 ‘龜齡王先生’은 南宋시기에 활동했던 저명한 정치가이자 시인인 王十朋(1112-1171)을 지칭하며, ‘龜齡先生이 편찬한 소식의 시집’이란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을 가리킨다.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는 소식 시집의 역대 주요 판본 가운데 分類注本 계통의 하나로 王十朋이 蘇軾 시 및 그와 관련된 96명에 달하는 주석가의 주석을 모은 뒤, 기존의 編年注本의 체계를 개편해 작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소식의 시를 전 25권으로 나누고 다시 내용에 따라 79類로 분류해 편집한 것이라고 알려진 蘇軾 시집이다.<sup>12)</sup>

위 서문을 통해 劉弘이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를 통해 소식의 율시를 재발견하고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공직에서 물러난 劉弘은 후학들의 시 학습에 편리하도록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에서 율시 일부를 뽑은 뒤, 시 아래 제가들의 평어를 초록함과 동시에 劉弘 자신의 비평적 견해도 함께 덧붙여 《蘇詩摘律》을 완성하게 된다. 특히 서문에서 劉弘은 문학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담은 문학관을 통해 소식시의 우수함을 높이 평가

11) 《蘇詩摘律》序: 東坡蘇先生詩若干卷, 乃龜齡王先生纂集, 一以所咏之題分類, 故五七言絶句, 律詩與古選, 長短歌詞雜收而併載焉. 奈何後學者於其長篇不能成誦處輒生睡思, 併其絶律東諸高閣, 所以先生之詩湮沒聲采而未能振耀於世. 予一日溫習舊業, 得龜齡先生纂集誦之, 頗窺蘇律毫發意趣, 公退之暇, 摘取若干首, 類抄諸儒句解於其下, 間亦僭竊妄補一二, 皆圈以自別, 集成名曰《蘇詩摘律》, 將貽諸家塾, 以便自觀.

12) 姜允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77쪽 참조.

하면서 자신의 《蘇詩摘律》을 통해 그 묘미를 후학들이 함께 깨달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아! 詩란 인간의 성정을 노래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유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새로움과 기이함을 가려 발라내거나 괴이함과 특이함, 그리고 그 글자 하나 구절 하나의 내력을 찾아내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은 자연스럽되 내력을 지녔는가 하면 기이하면서도 도리어 인간 성정의 올바름을 잃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아름답되 얻어 도달할 수 없는 까닭이다. 선생의 시가 어찌 이와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선생의 시가 인용이 광박하고 의미가 깊어 다시 새로움과 기이함을 골라 발라내고 기이함을 찾아 늘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선생이 작품을 지을 때 자연스러움이 性情과 함께 표현되어 붓을 따라 하나가 된 것은 알지 못한 것이다. 마치 무기를 쌓아둔 창고가 갑자기 열리며 방패와 창이 난무하는 것 같다고 선인들이 말한 것이 어찌 공허한 찬사이겠는가! 배우는 자들은 모름지기 이것을 읽고 음미해 선생 시의 오묘함을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sup>13)</sup>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소식 시의 우수함을 찾고 있는 劉弘은 같은 맥락에서 소식 시의 특징을 ‘援據宏博’과 ‘指趣深遠’이란 두 구절로 개괄해 내고 있다. 즉, 소식 시의 깊은 맛이 실제로는 광박한 지식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수사력과 의미의 심오함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蘇詩摘律》을 통해 소식의 율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劉弘의 강력한 의지는 당시 시단의 가까운 지인이자 같은 음에 살았던 進士 王璽(字大用)와 教諭직에 있던 吉水 출신의 曾進(字迪常)의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蘇詩摘律》로 결실을 맺게 된다.<sup>14)</sup>

13) 《蘇詩摘律》序：嗟夫，詩所以吟詠性情，貴乎自然流轉，不必摘剔新奇，搜羅怪異與夫一字一句之來歷。然或自然，有來歷，奇異復不失其性情之正，乃所以爲美，不可得而及，先生之詩詎不謂如此乎！但其援據宏博，指趣深遠，將謂摘剔新奇・搜羅怪異也，殆不知先生吟詠之際，自然與性情俱出，隨筆融化耳。先儒謂如武庫乍開，干戈森然，豈虛美哉！學者苟於此口誦而玩味焉，則先生全集之堂奧當自得之。

14) 《蘇詩摘律》序：時進士邑人王璽大用教諭，吉水曾進迪常吟壇契家也，見而悅之，重屬爲士君子共焉，遂相與僦工鐫刻以傳。

### 3. 판본 개황

현존하는 《蘇詩摘律》의 가장 오래된 판본은 內府藏本 6卷으로<sup>15)</sup> 《四庫全書存目叢書》 第14-15冊에 수록되어 있으며<sup>16)</sup> 현재 중국국가도서관과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7)</sup> 본장에서는 《蘇詩摘律》의 판본을 중국본과 조선본으로 이분한 뒤 그 서지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sup>18)</sup>

#### 3.1 중국본

內府藏本 6卷으로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蘇詩摘律》의 서지내용을 書影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明天順 5年인 1461년에 劉弘이 편찬한 판본으로 6卷 2冊의 완질본 형태를 지닌 목판본이다. 擘耳는 없고 板式은 四周雙邊에 半葉은 10行 19-20字大字, 單行19-20小字로 이루어졌다. 界欄은 있으며 大黑口이다. 版心魚尾는 上下向二葉黑魚尾이고, 각 권의 每葉 版心中央에는 '第□卷'이라는 권수가 적힌 版心題가 있다. 印章은 우선 卷首 首葉 제1행 '蘇詩摘律序' 아래쪽에 두 개의 방형 인장이 있고, 正文 首葉 제1행 '蘇詩摘律卷第一'이라는 서명 아래 5개의 크고 작은 방형의 인장이 있다. 책은 劉弘의 서문과 正文으로 이루어졌다. 正文의 구체적인 구성은 每卷 卷首에 '蘇詩摘律卷第一'이라는 서명이 있고, 이어지는 행 하부에 '長垣縣知縣無錫劉弘集注'라

15)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卷174, 《蘇詩摘律》條: 2365쪽, 集部二十七·別集類存目一: 蘇詩摘律六卷, 內府藏本.

16)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四庫全書存目叢書》(集部)(齊魯書社, 1997), 第14-15冊.

17)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 編, 《中國古籍善本書目》(集部)(上海古籍出版社, 1998), 256쪽, 2316쪽 참조.

18) 중국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실물 접근에 어려움이 커 일부 書影자료와 《四庫全書存目叢書》 자료에 의지했음을 밝힌다.

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혀 있다. 이어 작품제목과 작품본문이 있고, 작품본문 하단에 劉弘 자신을 포함한 諸家들의 평어를 집주하고 있다. 유흥의 서문은 두 개의 조선본에는 없고 이 상해도서관 소장본에만 있다. 이와 동일한 판본이 中國國家圖書館(北京)에도 소장되어 있다.

## 3.2 조선본

조선에서 간행된 《蘇詩摘律》은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세 종류로, 이와 관련된 일차적인 내용이 藤本幸夫의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에 비교적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藤本幸夫에 따르면 첫 번째 조선본 《蘇詩摘律》은 中宗 中·後葉경에 교서관에서 甲辰字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두 번째 조선본 《蘇詩摘律》은 明宗中葉에 全羅道 光州에서 木板本으로 간행되었다.<sup>19)</sup> 藤本幸夫의 기록에 근거해 두 판본의 서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2.1 甲辰字 금속활자본

#### 3.2.1.1 일본 尊經閣 소장본

조선에서 간행된 甲辰字 활자본 《蘇詩摘律》은 中宗 中·後葉 사이에 校書館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으로 일부 木活字가 혼입되어 있다. 書名은 '蘇詩摘律'이고, 6卷 2冊의 완질본 형태이다. 楮紙를 사용하고 있으며, 板式은 四周單邊이고, 內框은 20.9×14.4mm에 12行19字이다. 版心魚尾는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로 魚尾 사이에 '摘律幾卷 幾'라고 적혀 있다. 이 판본은 (1)蘇詩摘律序, (2)先儒姓氏<sup>20)</sup> (3)蘇詩摘律卷第一(至六)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 藤本幸夫의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에는 조선 시대 간행된 또 다른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소장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 상해도서관 소장본, 서울대 소장본에는 없다. 고려대 소장본은 권4-5만이 잔존해 그 유무

사용된 저본은 明天順 5年(1461년) 6月 上日 劉弘이 쓴 서문을 첨기한 판본이다.<sup>21)</sup> 藤本幸夫는 이 항목 '註·記'에서 表紙 左肩에 '乾(坤) 蘇詩摘律'이라고 黑書되어 있으며, 서문은 第1張 第10行까지이고, <先儒姓氏>는 第1張 第7行에 걸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각 권의 尾題는 首題와 동일하나 卷6에서만은 '終'字를 부기하고 있음을 특징적인 사항으로 지적했다. 每卷 머리 第2行 下部에 '長垣縣知縣無錫劉弘集註'라고 적혀 있고 卷2 第6張 第4行 열두 번째 칸은 '牛'字지만, 그 위에 '刁'字를 써넣은 종이 조각을 붙여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용지는 다소 두꺼운 양질의 종이이고 가로로 이은 종이 한 장이 확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2)</sup> 藤本幸夫는 이 판본이 中宗 中·後葉에 校書閣에서 甲辰字로 찍어낸 판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本書는 현재 일본 尊經閣에 소장중이며 국내에는 고려대학교에 卷四와 卷五가 二冊의 낱질본 형태로 소장중이며 誠庵文庫에도 六卷 一冊의 낱질본으로 소장되어 있다.<sup>23)</sup>

를 확인할 수 없다.

- 21)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4-734쪽; 番號: 集1743. 書名: 蘇詩摘律六卷二冊. 撰者: 宋蘇軾撰 明劉弘集註. 版種: 甲辰字(間混木活字) 印本. 刊者: 校書館. 刊年: [中宗中葉後葉間] 刊. 刊地: 漢陽校書館. 裝幀: 日本改裝 五針眼釘法 日本改絲. 寸法: 二十八·六×十八. 六纏. 紙質: 楮紙. 板式: 四周單邊 內框二十·九×十四. 四纏 十二行十九字. 版心: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 魚尾間「摘律幾卷 幾」. 構成: (1) 蘇詩摘律序(天順五年辛巳(一四六一)夏六月上日劉弘)(2) 先儒姓氏(3) 蘇詩摘律卷第一(至六). 序(1) 東坡蘇先生詩若干卷, 乃龜齡王先生纂集, 一以所咏之題分類, 故五七言絕句, 律詩與古選, 長短歌詞雜收而並載焉, 奈何後學者於其長篇不能成誦處……予一日溫習舊業得龜齡先生纂集誦之頗窺蘇律毫發意趣公退之暇摘取若干首類抄諸儒句解於其下間亦僭竊妄補一二皆圈以自別集成名曰蘇詩摘律將貽諸家塾以便自觀時進士邑人王壘大用教諭吉水曾進迪常吟壇契家也見而悅之重屬爲工君子共焉 遂相與僦工鐫刻以傳……天順五年夏六月上日直隸大名府開州長垣縣知縣前鄉貢進士常之無錫鶴叟劉弘超遠序, ……藍本: 明天順五年辛巳(一四六一)夏六月上日序刊本.
- 2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4쪽; 註·記: 表紙左肩黑書「乾(坤) 蘇詩摘律」. 序는 第一張裏第十行迄, 「先儒姓氏」는 第一張表第七行迄ある. 尾題는 首題と同じであるが, 卷六のみは「終」字を附す. 每卷首第二行下部「長垣縣知縣無錫劉弘集註」. 卷一第6張第四行第十二格は「牛」字であるが, この上に「刁」と書いた小紙片を貼付して訂正を加えている. 料紙はやや1)厚めの良質紙で, 横繼紙一張が確認される.
- 23)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4-735쪽; 研覈: ……中宗中葉後葉間校書館甲辰字印本と考える. 本書は韓國には高麗大學校存卷四·五存二冊, 誠庵文庫六卷一冊を存する. 所藏者: 尊經閣.

### 3.2.1.2 고려대 소장본

서명은 《蘇詩摘律》이고 甲辰字 동활자본으로 추정된다. 총 6卷 가운데 卷4와 卷5 2冊의 낙질본 형태로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각각 '화산 貴 160 4'와 '화산 貴 160 5'이다. 활자와 魚尾 및 판식 등으로 보아 간행시기는 조선 전기 중종 중·후엽이고 간행지는 교서관으로 추정된다. 板式은 四周單邊으로 半廓의 크기는 20.8(9)mm×15.2(3)mm이며 半葉은 12行 19大字, 雙行19小字로 이루어졌다. 紙張은 楮紙이고 界欄은 있다. 書口는 白口이고 黑口는 전혀 없다. 版心의 魚尾는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로, 각 권 每葉 版心 중앙에 '摘律卷 四', '摘律卷 五'라는 版心題가 적혀 있다. 序文, 跋文, 刊記, 牌記 등이 모두 없다. 4卷 正文 바로 앞의 葉次에 '初見以此摘律小甲辰字'라는 붓으로 쓴 筆寫記가 있는데 이는 소장자였던 화산 선생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구성에 있어 일본 존경각 소장본과 달리 劉弘이 쓴 <蘇詩摘律序>와 <先儒姓氏> 등은 없고 正文만 있다. 正文의 구성은 每卷 卷首에 '蘇詩摘律卷第四(五)'라는 서명이 적혀 있고, 이어지는 행 아래쪽에 '長垣縣知縣無錫劉弘集注'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혀 있다. 이어 작품제목과 작품본문이 있고 작품본문 하단에 劉弘 자신을 포함한 諸家의 평어를 집주하고 있는 등 상해도서관 소장본의 서지 사항과 일치한다.



### 3.2.2 木板本

#### 3.2.2.1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

藤本幸夫에 따르면 조선본 木板本の 書名은 '蘇詩摘律'이고 六卷, 一冊의 형

태이다. 조선 明宗 중엽 全羅道 光州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紙質은 楮紙가 사용되었고 板式은 四周雙邊에 內框은 19.9×14.64mm이고 12行 19字이다. 版心은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로 魚尾 사이에 '摘律幾卷 幾'라는 版心題가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일본 尊經閣에 소장되어 있는 甲辰字 활자본과는 달리 '先儒姓氏'가 빠진 채 '蘇詩摘律序'와 '蘇詩摘律卷第一(至六)'으로 되어 있다. 冊尾에 '敬復齋'라는 藏書印이 있고 每尾 左欄 바깥 하부에는 '元佶'이라는 서명이 검은 글씨로 적혀 있어 원래 소장자가 일본의 圓光寺 주지였던 元佶(1548-1612)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저본은 中宗 中·後葉에 敎서관에서 간행된 甲辰字로 추정된다.<sup>24)</sup>

이와 함께 藤本幸夫는 表紙 左肩에 '蘇詩摘律 完'이라는 검은 글씨가 적혀 있으며, 表紙 右肩의 '結'자는 圓光寺의 分類로 추정하고 있다. 또 內框이 19.4 mm에서 20.4 mm까지로 편차가 있으며 朱點과 朱引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 책에는 <先儒姓氏> 한 장이 누락되어 있고 일부는 좀이 슬고 파손되었으며, 대부분은 四周雙邊이고 魚尾는 二葉 花紋과 無紋이 섞여 있다고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卷1 第13·14·19張, 卷2 第2·3·8·9·12張에서 15張까지, 卷3 第10張, 13張, 卷5 第6·7·9張, 卷6 第2張은 上下가 黑口이고 卷1 第15·16張, 卷5 第8張은 아래쪽에 黑口가 있으며 卷4 第12張에는 上魚尾가 빠져 있다는 등 소소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sup>25)</sup> 藤本幸夫는 본서가 中宗 中·後葉경에 간행된 甲辰字 印本을 明宗 연간에 覆刻한 中각본이라고

24)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5쪽: 番號: 集1744. 書名: 蘇詩摘律六卷一冊. 撰者: 宋蘇軾撰 明劉弘集註. 版種: 木板本. 刊年: [明宗中] 刊. 刊地: 全羅道光州. 裝幀: 原表紙 五針眼釘法 日本改絲. 寸法: 二十六. 五×十八, 一樞. 紙質: 楮紙. 板式: 四周雙邊 內框十九. 九×十四. 六四樞 十二行十九字. 版心: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 魚尾間「摘律幾卷 幾」. 構成: (1) 蘇詩摘律序 (2) 蘇詩摘律卷第一(至六). 刻手名: [1] 上·下魚尾 (1) 全·州 3679. 藏書印: 冊尾「敬 / 復 / 齋」. 識語: 每尾左欄外下部黑書「元佶(花押)」. 藍本: [中宗中葉後葉間] 甲辰字印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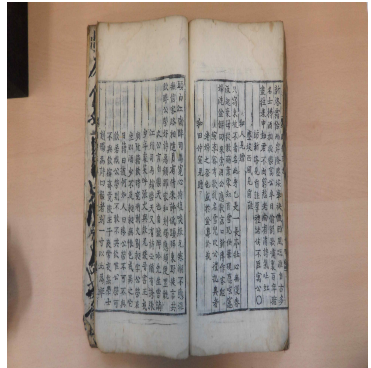
25)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5쪽: 註·記: 表紙左肩黑書「蘇詩摘律 完」. 表紙右肩「結」、圓光寺に於ける分類であろう. 內框縱十九. 四至二十. 四樞の差あり. 朱點·朱引あり. 蠹損·破損か若干ある. 殆どは四周雙邊で, 魚尾は二葉花紋や無紋等種. 該書は「先儒姓氏」一張を缺く. 卷一第十三·十四·十九張, 卷二第二·三·八·九·十二至十五張, 卷三第十至十三張, 卷五第六·七·九張, 卷六第二張は上下黒口, 卷一第十五·十六張, 卷五第八張は下黒口があり, 卷四第十二張は上魚尾を缺く.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藤本幸夫는 《攷事撮要》(1568年頃) 光州條에 <蘇州摘律>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本書 版心에도 '全州'와 全羅道の 地名이 있는 것으로 보아 本書가 《攷事撮要》에 기록된 <蘇州摘律>이라고 판단하고 있다.<sup>26)</sup> 단, 書名 중의 '州'字는 실은 '詩'의 誤刻이며 版心の '全州'라는 문구는 이 판본이 실제 판각된 곳이 光州임에도 불구하고 全州 출신의 刻手가 가담함으로써 삽입된 내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藤本幸夫는 麗正한 印面을 근거로 이 책이 초기에 인쇄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圓光寺 주지였던 元佶의 오래된 藏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본서는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중이며 국내에는 雅丹文庫에 卷四-六이 一冊으로 존재한다고 했다.<sup>27)</sup>

### 3.2.2.2 서울대 소장본

본 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상기한 木板本과는 별도의 판본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목판본 《蘇詩摘律》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자세한 서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는 《蘇詩摘律》은 6卷 1冊의 완결본 형태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서울대 도서관번호는 '3442 190'이다. 양질의 楮紙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간행



26)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中華書局, 2004), 179쪽, 1456쪽 참조.

27)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5쪽; 研覈: 本書は中宗中葉後葉間刊と思われ甲辰字印本の覆刻である. 《攷事撮要》(一五六八年頃) 光州條に<蘇州摘律>があり, 本書版心に「全州」と全羅道地名があつて, 本書がこれに當たる. 書名中の「州」字は詩の誤刻である. 光州で刻したものの全州出身の刻手がこれに加わっている. 本書は明宗中覆刻と思われ, 印面麗正で早印である. 該書は圓光寺住職三要素元佶舊藏書である. 韓國では雅丹文庫に存卷四至六存一冊がある. 所藏者: 國會圖.

시기는 未詳이다. 板式상태는 四周單邊과 四周雙邊이 함께 나타나며, 半郭의 크기는 20.8mm×15.2mm이다. 半葉은 12行 19大字에 雙行19小字로 甲辰字 금속활자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곳곳에 고려대 소장본과는 다른 書體가 발견된다. 界欄은 있고 書口는 白口가 대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 大黑口가 나타난다. 版心 魚尾는 上下內向三葉花紋黑魚尾이다. 每葉 版心 魚尾 사이에는 '摘律幾卷 幾'라는 版心題가 적혀 있다. 書耳와 印章은 없으며 序文, 跋文, 刊記, 牌記, 筆寫記, 先儒姓氏 등도 없고 正文만 있다. 正文의 구성은 고려대 한적실 소장본과 동일하다. 甲辰字 금속활자본인 일본 존경각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6卷 마지막 行에 '終' 字를 부기한 '蘇詩摘律第六終'이라는 尾題가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이 서울대 소장본의 版心題이다. 즉, 版心題의 내용이 '摘律幾卷 幾'라고 되어 있어 版心에 '全州'와 全羅道地名이 판각되어 있는 《攷事撮要》의 목판본과는 별개의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蘇詩摘律》의 판본 종류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판본종류	판본유형	간행시기·간행자	소장처	판본상태
중국본	목판본	明 天順 5年(1461년)· 劉弘	中國國家圖書 館· 上海圖書館	완질본(6卷 2冊)
조선본	금속활자본 (甲辰字)	中宗 中·後葉·교서관	일본 尊經閣	완질본(6卷 2冊)
			고려대 한적실	낙질본(2卷 2冊: 卷4, 卷5)
	목판본1	明宗 中葉·全羅道 光州	일본 국회도서관	완질본(六卷 一冊)
목판본2	미상	서울대 고문헌실	완질본(六卷 一冊)	

이상 현존하는 조선본 《蘇詩摘律》의 판본 종류는 금속활자본 1종과 목판본 2종 등 모두 3종으로 조선시대에 그 간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유지된 소식에 대한 조선사회의 관심을 반영해주는 한 현상으로서 중국의 근체시 시선집이 활발하게 반입·간행된 당시의 문단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조선 전기에 중국으로부터 반입·간행된 중국 시선집들의 조선본 편찬 현황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들의 전문화 경향으로, 300 수에 달하는 소식의 칠언율시를 수록·집주하고 있는 《蘇詩摘律》은 당시 간행된 《虞註杜律》·《鼓吹續編》 등과 함께 칠언율시 전문 시선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sup>28)</sup>

#### 4. 편찬체제상의 특징

편찬체제에 있어 《蘇詩摘律》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이 王十朋의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에서 소식의 칠언율시 279수<sup>29)</sup>만을 발췌한 뒤 그 하단에 제가의 비평 및 자신의 견해를 집주형식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劉弘 자신의 서문에서 이미 분명히 기술되고 있다.

28) 黃渭周, <朝鮮 前期의 漢詩選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0집, 1997), 39쪽 참조.

黃渭周, <韓國本中國詩選集의 編纂에 대한 研究>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3집, 2003) 참조.

黃渭周, <주자의 소동파 배격과 조선초기 한문학> (대동한문학회, 《大東漢文學》 제5집, 1993) 참조.

허권수, <소동파 시문의 한국적 수용>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 제14집, 1988) 참조.

조규백, <朝鮮時代文人對蘇東坡詩文의 “受容” 反基蘇東坡觀>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8집, 2006) 참조.

29) 《蘇詩摘律》에 수록된 소식의 칠언율시가 279수라는 것은 《四庫全書存目叢書》에 수록된 明天順 刻本의 통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王友勝은 原本 卷3의 20쪽, 卷6의 5쪽과 8쪽이 낙질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실제 수록 편수는 279수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王友勝 著, 《蘇詩研究的歷史進程》(新星出版社, 2002), 142쪽, 주석1 참고.

나는 어느 날 예전에 하던 시 공부를 다시 하다가 龜齡 先生이 편찬한 소식의 시집을 얻어 읽는 도중에 소식의 율시를 발견하고는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 공직을 물러나 한가해지자 일부 작품들을 뽑아 종류별로 여러 학자들의 평어를 그 아래 초록한 뒤 사이사이에 나의 견해를 한 두 가지를 끼워 넣고 모두 圈點을 이용해 직접 분류해 시집의 이름을 《蘇詩摘律》이라고 명명했다.<sup>30)</sup>

律詩만을 선별한 뒤 그 아래 편자인 劉弘 자신의 평점 및 기존 제가들의 비평을 집주해 놓고 있는 《蘇詩摘律》의 편찬체제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와<sup>31)</sup> 藤本幸夫 모두 지적한 바 있다.

예전에 宋代 王十朋(字가 龜齡)이 東坡의 詩를 咏題하여 分類한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가 전해졌다. 劉弘이 이것을 얻어 공직을 물러난 한가한 때에 律詩만을 선별해 여러 유학자들의 주석을 아래쪽에 부기하고 간간이 자신의 견해를 보충해 本書를 이루었다.<sup>32)</sup>

集注에 활용된 제가의 비평에는 趙次公·李厚·程縝·宋援·林敏公·師尹·孫倬·胡仔·傅藻·趙夔 등의 평어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劉弘이 그들의 평어를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음은 특징적이며<sup>33)</sup> 그 자신의 평어를 제가들 평어 말미에 圈點을 이용해 배치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劉弘 자신의 평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대부분이 소식 시의 형식이 지니는 예술적 특징보다는 그 사상적 의미를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卷三에 수록된 <李鈴轄坐上分題戴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어를 부기하고 있다.

30) 《蘇詩摘律》序: 予一日溫習舊業, 得龜齡先生纂集誦之, 頗窺蘇律毫發意趣, 公退之暇, 摘取若干首, 類抄諸儒句解於其下, 間亦僭竊妄補一二, 皆圈以自別, 集成名曰《蘇詩摘律》.

31)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卷174, 《蘇詩摘律》條: 2365쪽, 集部二十七·別集類存目一: 惟取蘇軾集七言律詩注之.

3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734쪽: 嘗って宋王十朋 字龜齡が東坡詩を咏題で分類した《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がわった. 劉弘はそれを得、公退の暇に律詩のみを摘取し、諸儒の註を下に附し、間〇己の見解をも補って本書を成したと言う.

33) 王友勝 著, 《蘇詩研究的歷史進程》, 143-145쪽 참고.

이 詩에서는 先生이 연민에 젖어 느끼는 사물에 대한 감정을 은연중에 살필 수 있다. 劉辰翁이 말한 ‘원통함과 슬픔이 지독해 매 구마다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옳다.<sup>34)</sup>

劉弘은 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소식의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적 의미를 밝혀내기도 한다. 예컨대 卷二에 수록된 <惠山謁錢道人烹小龍團登絕頂望太湖>라는 시에서 소식은 전반부에서는 惠山의 풍광을 묘사하고 끝 두 구에서는 孫登(約220年-280年)의 고사를 인용해 자신이 느낀 은둔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劉弘은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惠山の 샘물은 너무 맑아 차를 달이면 향기롭고도 달다. 九龍峰은 山의 왼쪽에 있고 太湖는 산 남쪽에 위치해 있다. 산꼭대기에 올라 바라보노라면 풍광이 너무 아름답다. 先生은 끝 두 구에서 孫登의 故事를 빌려 말했으니 興을 빌어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sup>35)</sup>

이밖에 劉弘은 이따금 시를 관통하는 소식의 생각을 간결한 언어로 개괄해 내기도 한다. <次韻李修有留別二首>(卷三)의 두 번째 시에 대한 평어가 그 한 예이다.

앞 네 구에서 先生은 지난날 폄적당했던 심정을 홀로 아파하고 있다. 뒤 연에서는 인생의 곤궁함과 통달함은 달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음을 표현하고 있다.<sup>36)</sup>

한편 <壽星院寒碧軒>(卷二)에 대한 평어에서는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언어로 매 연의 대의를 분석해내기도 한다.

34) 《蘇詩摘律》 卷三·<李鈴轄坐上分題戴花>: 此詩先生傷已感物之情隱然可見, 劉辰翁所謂‘慷慨巉巖, 句句見題’是也.

35) 《蘇詩摘律》 卷二·<惠山謁錢道人烹小龍團登絕頂望太湖>: 按惠山泉水甚清, 煮茶則香而恬, 九龍峰在山之左, 太湖居山之南, 登絕頂而望, 風景極美, 先生未借孫登故事, 言乃托興寄意耳.

36) 《蘇詩摘律》 卷三·<次韻李修有留別二首>: 前四句先生自傷向時遷謫之情, 後聯言人生窮通不同, 而思家則同.

이 시의 첫머리에서는 맑은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드는 것을 표현했고, 제 2구에서는 창 밖에 큰 대나무가 있게 된 연고를 일깨우고 있다. 제 3·4구에서는 제 2구를 이어 대나무를 묘사하고 있으며, 제 5·6구에서는 대나무 누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는 마침내 壽星院의 주인으로 귀착해 말한 것이다. 참으로 맑고 경쾌하니 읊조리노라면 속세의 근심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다.<sup>37)</sup>

각 시에 대한 이와 같은 평어들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데서 그 긍정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련 평어들에 다소 엄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蘇詩摘律》평점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sup>38)</sup>

## 5. 결론

조선시대에 간행된 소식의 시선집 가운데 《蘇詩摘律》은 명대 간행된 여러 蘇詩選本 가운데 하나로 조선 전기에 중앙과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고는 《蘇詩摘律》이 지닌 문헌적 의미를 편찬경위, 판본개황, 편찬체제상의 특징 등 판본고찰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蘇詩摘律》은 명초에 劉弘이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를 기초로 300 여 편의 소식 칠언 율시만을 편집·수록한 소식의 칠언율시선집으로서 그 간행시기는 1461년이다.

둘째, 현존하는 《蘇詩摘律》의 판본은 중국본과 조선본으로 모두 4종이다. 현존하는 중국본은 중국국가도서관과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 1종이며 조선본은 모두 3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조선본은 다시 1종의 甲辰字

37) 《蘇詩摘律》卷二·〈壽星院寒碧軒〉: 此詩首言清風響動窓扉, 以起第二句, 窓外有大竹之故. 第三·四句承第二句, 形容竹. 第五句·六句以竹閣所見聞而言, 末二句乃歸着院主說, 甚是清快, 誦之令人頓去俗慮.

38)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卷174, 《蘇詩摘律》條: 潦草殊甚.

\* 이에 대해 王友勝도 지적한 바 있다. 王友勝 著, 《蘇詩研究的歷史進程》, 145쪽 참고.

금속활자본과 서로 다른 판본으로 추정되는 2종의 목판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른바 조선시대의 甲辰字 금속활자본은 中宗 中·後葉에 校書館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일본 尊經閣(완질본)과 고려대 한적실(낙질본)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2종의 목판본 가운데 하나는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에 완질본으로 소장중이며 明宗 中葉에 全羅道 光州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간행시기와 간행자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목판본 1종이 현재 서울대 고문헌실에 완질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셋째, 편찬체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蘇詩摘律》은 각 시 하단에 劉弘이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을 바탕으로 趙次公·李厚·程續·宋援·林敏公·師尹·孫偉·胡仔·傅藻·趙夔 등 제가의 평어를 새롭게 편집해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마지막 부분에 劉弘 자신의 평어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어의 중요한 기능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에서 간행된 《蘇詩摘律》의 판본이 3종류라는 사실로 이는 조선 시대, 특히 조선전기 소식 칠언율시의 수용양상을 일정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된 《蘇詩摘律》의 간행은 고려에 이어 조선전기까지도 이어진 蘇軾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 및 근체시에 주목했던 조선전기 문단의 특수한 현상, 그리고 당시 간행된 중국시선집의 전문화 양상이라는 문화적 배경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선본 《蘇詩摘律》은 향후 이들의 상관성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參考文獻 >

劉弘 集注, 《蘇詩摘律》 고려대 소장본

劉弘 集注, 《蘇詩摘律》 서울대 소장본

劉弘 集注, 《蘇詩摘律》 상해도서관 소장본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四庫全書存目叢書》 集部, 第14-15冊, 別集類/ 濟南:

齊魯書社, 1997.

紀昀等, 《欽定四庫全書總目提要》, 北京: 中華書局, 1997.

中國古籍善本書目編輯委員會編, 《中國古籍善本書目》(集部)(全三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王重民選, 《中國善本書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천혜봉,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3.

\_\_\_\_\_,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2001.

\_\_\_\_\_,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_\_\_\_\_,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孫寶基著, 《한국의 고활자》, 서울: 寶晉齋, 1982.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蘇軾撰, 王文誥輯注; 孔凡禮點校, 《蘇軾詩集1-8》, 北京: 中華書局, 1982.

蘇軾著, 馮應榴(清)輯注; 黃任軻·朱懷春(共)校點, 《蘇軾詩集合注1-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류종목 역주, 《蘇軾詩集》, 서울: 서울대학교, 2005.

류종목 역, 《소동과 시선》, 서울: 지만지, 2008.

王友勝著, 《蘇詩研究的歷史進程》, 서울: 新星出版社, 2002.

김보경, <宋元時期 蘇詩板本에 대해서>, 韓國中國語文學會, 《中國文學》 제60집, 2009.

\_\_\_\_\_, <명대(明代) 소시(蘇詩) 판본(版本)에 대해서>, 중국어문연구회, 《中國語文論叢》 제46집, 2010.

당윤희, <朝鮮刊 蘇軾 詩集 板本 小考>, 韓國中語中文學會, 《中語中文學》 제45집, 2009.

黃涓周, <韓國本中國詩選集的編纂에 대한 研究>,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제3집, 2003.

\_\_\_\_\_, <朝鮮 前期의 漢詩選集>,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0집, 1997.

\_\_\_\_\_, <주자의 소동과 배격과 조선초기 한문학>, 대동한문학회, 《大東漢文學》 제5집, 1993.

허권수, <소동과 시문의 한국적 수용>,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 제14집,

1988.

조규백, <朝鮮時代文人對蘇東坡詩文的‘受容’反基蘇東坡觀>,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8집, 2006.

백승호, <朝鮮時代 『瀛奎聿髓』 간행과 『聿髓刊誤精選』>, 한국서지학회, 《서지학보》 제30집, 2006.

김상일, <『瀛奎聿髓』와 조선시대 수용의 의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제23집, 2000.

### < 中文提要 >

本稿基於文獻學的觀點初步探討《蘇詩摘律》版本的特徵和文獻價值。其研究內容如下。第一, 《蘇詩摘律》是明初(1461)由劉弘編纂的一部蘇軾七言律詩選集。第二, 現存的《蘇詩摘律》版本共有4種。一種是中國本, 三種是朝鮮本。第一種是1461年由劉弘刊行的木版本, 第二種是朝鮮中宗中·後葉由校書館所印的“甲辰字金屬活字本”。第三種是朝鮮明宗 中葉全羅道光州刊行的木版本, 第四種是刊行時期和刊行地未詳的另一種木版本。第三, 《蘇詩摘律》的編輯體製上的特徵為在各詩下段所附記的諸家以及劉弘本人的評語。總而言之, 通過這次研究, 筆者認為《蘇詩摘律》在朝鮮時代一共刊行了三次併且被廣泛接受。

關鍵詞: 蘇詩摘律、劉弘、甲辰字金屬活字本、木版本、蘇軾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6.30	2011.7.24	2011.8.14	2011.8.20	2011.8.31